

광주경찰 공조수사 부실...치안대책 불안

술집 여주인 살해 사건

피의자 112 신고에 2명 출동 40분 지나서야 피살자 발견

광주경찰의 공조수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거나 범죄 피해품 회수가 곤란한 지경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0여 분 만에 발견되는가 하면, 40대 여성 사업가의 차량에서 거액을 훔친 절도범을 붙잡고서도 피해품이나 수법에 대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사건에 묻혀버린 사례가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이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0시30분께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건강관리협회) 건너편

자동차 현금 봉지 절도 사건

북부경찰 차량털이범 검거 송치 남부경찰이 뒤늦게 범행 밝혀

공터에서 술집 여주인 권모(53)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있는 것을 농성파출소 소속 A경위 등 2명이 발견했다. A경위 등 2명은 앞서 “건강관리협회 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지령상의 지령을 받고서 40여분 전부터 건강관리협회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권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2)씨는 농성동의 한 술집 앞 공터에서 권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2차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직전인 11시51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이씨는 또 화정동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검거된 당시(0시7분)에도 “건강관리협회 골목에서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살인범이 범행 장소를 지목하며 전화로 112에 범행사실을 고지한지 40분이 지나서야 피살자가 발견된 것이다. 2명의 경찰관이 피살자를 발견하는 데 40분이 걸린 사례는 경찰의 공조 수사(수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농성파출소의 나머지 직원들은 인근 도박현장에 출동한 상태여서 지원이 불가능했고, 인접 경찰관서에도 공조를 요청했지만 다소 외진 곳이라 발견이 늦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구 여성 사업가 현금 봉지 절도 사건에서도 경찰의 공조 부실은 확인된다. 남부경찰은 지난 2일 광주지검 유치장에 수감 중인 절도범 이모(44)씨가 지난달 5일 남구 봉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사업가 김모(45)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3800만원을 훔쳐간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에서 생활용품판매점 8곳을 운영하

는 김씨는 은행 방문이 번거로워 매장에서 수급한 현금을 차량 보조석 발판 아래 보관해오다가 절도범 김씨에게 피해를 봤다.

절도범 이씨는 지난달 25일 현금 1650만원을 지닌 채로 북부경찰에 검거됐지만, 여성 사업가 현금 봉지 절도 사건만은 입을 꼭 다물었다고 한다. 자신이 지난 8개월간 저지른 39건의 차량 털이 범행에 대해서는 실도 했지만, “1650만원은 정선 카지노에서 딴 돈이며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이다.

경찰의 피해품 및 수법 공유가 부실했던 탓에 현금 봉지 절도 사건 자체를 몰랐던 북부경찰은 이씨가 보유한 1650만원을 그가 다른 차량을 털어 마련한 장물로 보고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미공으로 빠질 뻔했지만 지난 2일 북부경찰이 낸 차량털이범 검거보고서를 본 남부경찰이 뒤늦게 이씨를 찾아가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 10곳 중 7곳

야간 문 잠그고 출동...치안공백 심각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10곳 중 7곳이 야간에 문을 잠그고 출동, 심각한 치안 공백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신고 출동 시 파출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 203개소 중 144개소가 문을 닫고 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로 전국 평균 35.5%의 2배에 달한다. 전남에 이어 전북(64.6%), 경북(61.1%), 충북(55.1%), 경남(50.0%) 순이다. 광주경찰청은 15%로, 지구대·파출소 40곳 중 6곳이 심야 출동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원부족 때문으로 분석됐다. 9월 4일 기준 전남경찰청의 총 정원은 2329명

인데 현인원은 2266명으로 63명이 부족했다. 특히, 전남지역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203곳 중 44.3%인 90곳에서 정원이 미달됐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최소 90명이 부족할때 전체 전남경찰청 인원으로서는 63명만이 부족하다는 것은 최일선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 인력보다 경찰청과 경찰서 등 행정인력 증원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 의원은 “파출소는 최일선에서 민생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손발”이라며 “심야에 긴박한 강력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나 민원인이 파출소를 찾았는데 문이 잠겼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겠느냐. 말로만 민생치안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I 비판 농장주 음독자살 기도

종로리 농장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최근 자신의 농장에서 공급한 병아리가 잇달아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비판, 음독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지역에서 종로리 농장을 운영하는 A(여·51)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A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연락을 받은 가족은 즉시 농장을 찾아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종로리 1만5000여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 1일 전북 고창과 지난 2일 강진 지역 오리농가에 공급한 병아리가 잇달아 AI양성 판정을 받아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son@



새내기 공무원들의 다짐

광주시 서구 새내기 공무원 24명이 5일 서구청사 안에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좌우명을 담은 손글씨를 보여주며 합박 웃음을 짓고 있다. 이들은 6일까지 민원응대, 직장에질 등 소양교육을 받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헌혈 릴레이 ‘하트 베드 챌린지’ 아시나요

(Heart Bed Challenge)

‘아이스 버킷 챌린지’ 모티브 북구청 직원들 중순부터 진행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광주시 북구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형태의 헌혈 릴레이가 펼쳐진다.

5일 북구 제21기 청년간부회의(의장 정영민)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하트 베드 챌린지(Heart Bed Challenge·사진)’를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참가자가 세 명을 지목해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지 100달러를 루게릭병 단체에 기부하라’고 요구하는 기부 운동이다.

‘하트 베드 챌린지’는 혈액을 상징하는 심장(하트·마음)과 헌혈을 할 때 사용하는 침대(베드)를 결합해 만든 명칭으로 ‘혈액이나 피를 연결해 주는 침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캠페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헌혈 릴레이는 참가자로 등록된 사람이 헌혈을 한 뒤 인증샷과 후기를 구

청 게시판에 올리고, 이후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한 명을 지정하면 지목을 받은 사람이 캠페인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대상은 북구 직원과 가족 구성원이다.

청년간부회의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6~7월께 구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의사를 물었고, 상당수 직원으로부터 지지의사를 받았다. 또 지난 9월 실제 참가자 10명을 모집했고, 청년간부위원 21명도 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청년간부회의는 6일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공식적인 시행날짜와 진행 순서, 헌혈증서 사용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년간부회의는 매년 7~9급 사이 공무원 20명 내외로 조직대 봉사활동과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이다. 문의 062-510-14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정 의장은 “매년 겨울철이면 혈액이 부족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헌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염전 노예’ 1년 전남 섬 인권유린 여전...129명 적발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전남 섬 지역의 인권유린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까지 전남 섬지역 인권유린 사건으로 총 89건 129명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임금 착취, 폭행, 납치(약취 유인) 등 범

죄였다. 하지만 섬지역 관할 경찰서의 인권수사팀에는 장애인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다.

유 의원은 “지난해 사회를 발칵 뒤집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 전남도와 전남지방노동청이 인권유린 여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체불, 폭행 등이 의심되는 염주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염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법 “특수강간 유죄 택시기사 면허취소는 당연”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택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 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사실흔 관계의 여

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흥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버리는 책임 줄 알고...교수가 잠시 내놓은 서적 고물상에



○‘대학 교수가 여 름방학을 맞아 집에 가 자기 위해 잠시 내놓

은 서적 수십권을 수레에 싣고 가 할당으로 고물상에 팔아넘긴 70대 노인이 경찰서행.

○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고물 수집을 하며 생활을 하는 양모(74)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6시23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대학교 본관 건물 1층 로비에서

이 대학 A(여·54) 교수의 서적 30여권(100만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한 권당 2만~3만원에 이르는 서적 30여권을 모두 합쳐 2만2500원에 폐지로 팔았는데, 그는 경찰에서 “학교에 빈 칸을 주우려 갔다가 버리는 책임 줄 알고 가져갔다”라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4억 5천

수익성 상가 <상무지구 오피스텔 >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2천,월7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 북구 중흥동 원통 상가 (전대 정문2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뒷편
(상가 밀집지역)
모아엘가 앞 (6천세대 밀집)

보 3천, 월수익 **180만**
(용 2억5천만) 실투자 → **1억**

매가 3억 7천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임대완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나주 삼영동 (영산포) 2층상가 매매 월수익 200만(용 1억 2천) → 매가 2억 9천만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 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편,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성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근부상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평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평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평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상3층(토 4.2평, 건18.6평)감평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평가 3억9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평가16억2천~최저가19억
- 북구신원동(토32평,건48평)감평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3평) 감평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3천만

수익성상가(근린주택,오피스텔)

- 서구 금호동 (토 63평,건111평) 감평가 3억3천~ 최저가 3억3천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평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골,통건물)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평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평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평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평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263평)감평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구하동(토337평,건509평)감평가 22억3천~최저가 15억6천
- 광산구 쌍림동 (정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평가 36억7천~ 최저가 29억
- 서구 광천동 (토지 76평,건86평) 감평가 3억2천~3억2천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평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 8억4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